

용인상의

YONGI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용인상공회의소 소식지 www.Yonginbiz.com

가을 Vol. 3
2019





one Q 초간편식 원큐

1인 식사 뿐만 아니라, 캠핑장, 낚시터 등 다양한 레저활동에도 알맞는 태종어프디만의 간편식입니다.

① 원큐에 없는 3가지



No! Cook
조리가 필요
하지 않아요



No! bowl
울걸 그릇도
필요 없어요



No! Wash
실거지 없이
버리면 끝!

② 초간편 원큐 미리보기



물 붓기
재물에 물을
부어주세요



가열하기
가열기구로
가열해주세요



버리기
다액은 용기는
분리수거로 끝

그릇조차 필요없는 초간편 원큐!
TAEJONGFD 에서 생산합니다.

20
YEAR

전통한식의 대중화,
맛있고 간편한 한식을 위해
20년을 달려 왔습니다.

Clean
System

HACCP은 물론, 자체 위생
기준을 통해 위생적인 생산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AB
For food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더 간편하고,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OEM
Manufacture

다양한 생산 설비를 보유,
일 최대 60,000개를 생산
할 수 있어, 대량 주문에도
전문적인 생산을 합니다.

용인상의

상공인을 대표하는 상공저널 | YONGI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2019 가을 Vol.3 | 용인상공회의소 소식지

CONTENTS



05



35



18

YCCI
YonginCCI
News

4 상의동정 제10기 경영인아카데미 수료식
제131~133회 명사초청 조찬세미나
경영인아카데미총동문 합동 강의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간담회
경영인아카데미 10기 회장단 간담회
기타행사 및 회장동정

12 상의 단신

14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YCCI
Member
story

18 회원사 탐방 주방기구 대표 세계적 선도기업 (주)성창베네피나
24 회원사 동정
32 용인시 우수기업 제품 에이스전자(주) ACE K9 무선 진공청소기

YCCI
Yongin story

34 용인지역소식 용인 백암면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용인도시공사, 민관합동방식 덕성2산업단지 본격 추진

YCCI
Biz story

36 브리프 Z세대의 등장과 기업에 주는 시사점
40 대한상의 SGI 보고서 혁신성장으로 복지 몸집 키운 '북유럽 모델' 본받아

YCCI
Column

42 법률 유류분제도에 대하여
44 고용노동부 개정법령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이 금지됩니다
46 고용노동부 기업지원사업



발행일 2019년 10월 1일
발행처 용인상공회의소
발행인 서석홍
주소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81(역북동)
전화 031-332-9812
기획·편집 용인상공회의소



용인BIZ 내용은 인터넷으로 제공됩니다.
(www.yonginbiz.com) 용인BIZ에 게재
되는 각종 기사는 반드시 용인상공회의
소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10기 경영인아카데미 수료식

일시_ 2019. 7.10(수)

장소_ 용인상공회의소 세미나실

용인상공회의소는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경영인아카데미 10기 수료식을 7월 10일 본 회의소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 날 수료식에는 용인상공회의소 서석홍 회장, 용인경영인아카데미 총동문회 김동훈 회장, 김종두 수석부회장, 아카데미 각 기수 회장 및 원우, 현대경제연구원 진호은 연구위원 및 10기 수료생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10기 수료생들의 추억이 담긴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각 원우들에게 수료증 및 경영설계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수상에는 10기 회장인 나준수 수강화학(주) 대표이사, 이철용 (주)해창산업 대표이사, 소정민 픽스톤(주) 이사, 손경태 (주)태경솔루션 대표이사, 서정옥 보성실업 대표, (주)대림

건축사사무소 김정남 전무 등 총 6명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뒤이어 10기 회장에게 총동문회 부회장 위촉패 전달과 10기 육성기금을 전달하였다.

용인상공회의소 서석홍 회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예견된 힘든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서도 경영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인과 수료하는 10기 원우들이 자랑스럽다”라고 축사를 하였다. 10기 회장의 답사와 기념사진 촬영 후 만찬을 함께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10년 시작된 경영인아카데미는 그동안 10기까지 배출해냈으며, 300여 명의 기업인네트워크로 용인지역 최고의 경영인아카데미로 성장하였다. 용인상공회의소 경영인아카데미는 매년 한 기수씩만 배출하고 있으며 제11기는 2020년 3월에 모집할 예정이다.



제131회 명사초청 초찬세미나

리더의 스트레스 관리법

- 나의 에너지를 관리하자 -

이동환 _ 직무스트레스연구소 대표

일시_ 2019. 6.12(수)

장소_ 용인상공회의소 세미나실



용인상공회의소는 6월12일 직무스트레스연구소 이동환 대표를 초청하여 제131회 명사초청 초찬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동환 대표는 연세가정의원 만성피로클리닉 원장, 만성피로연구회 회장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고도일병원 만성피로센터 원장을 겸하고 있다.

이날 강연에서 이동환 대표는 ‘건강 백세를 위한 심신관리법’으로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기업인과 임직원들에게 건강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스트레스, 수면부족 등을 꼽고 근육피로 해결법, 독소 해독법 등 생활요법 실천법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이동환 대표는 온갖 질병의 원인으로 첫손에 꼽히는 것이 스트레스라며, 스트레스를 막을 수 없다면 자신만의 해소법을 터득하는 방법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직무스트레스는 기업인과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고

“직무에 관련된 문제요인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로 개인이 맡은 업무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압박감을 느낄 때 발생하는 심리적 혹은 신체적 반응을 말한다”고 하였다.

감정노동자 및 개인이 과다한 책임을 맡거나 보상이 결여된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며, 직무와 직위가 불안정할 경우에도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신체의 기관에 구조적, 기능적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며, 개인은 우선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적극적인 태도로 생활하도록 노력하여,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취미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담당자들에게도 “업무적으로 책임을 주는 일을 부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시하여 기업 안에서의 스트레스 완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였다.

제132회 명사초청 초찬세미나

영화속의 리더십

성승환 _ 파라솔 문화콘텐츠연구소 대표

일시_ 2019. 7.10(수)

장소_ 용인상공회의소 세미나실



용인상공회의소는 7월 10일 파라솔 문화콘텐츠연구소 성승환 대표를 초청하여 시네마콘서트 형식으로 제132회 명사초청 초찬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강의에 앞서 용인지역 우수기업인 LIG넥스원(주) 기업홍보영상을 상영하여 용인지역의 우수기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승환 대표는 현재 첼리스트 활동뿐만 아니라 TV 광고, 영화 등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광고대상 은상을 수상한 ‘또 하나의 가족’을 기획하였다. 2000년에는 10대가 뽑은 올해 최고의 광고에 그가 제작한 광고가 두 편이나 등재된 젊은 예술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승환 대표는 현장에서 직접 첼로를 연주하며 영화 ‘쥬스’, ‘미션 임파서블’ 등에 삽입된 영화음악을 통해 영화감독들이 새로운 도전의식과 협업을 통하여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흥미로운 시간을 만들었다.

이번 강의는 일반적인 특강형식에서 벗어나 가슴을 울리는 영화속 명장면과 주제곡을 라이브로 감상하며, 영화속에서 내포된 메시지를 통해 행복한 삶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공감콘서트로 진행되었다. 평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클래식을 영화로 풀어내어 친근하고 재미있게 받아 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를 받은 강연이었다.



제133회 명사초청 초찬세미나

수축사회와 미래의 도전

홍성국 _ 해안리서치 대표

일시_ 2019. 9.11(수)

장소_ 용인상공회의소 세미나실



용인상공회의소는 9월 11일 해안리서치 홍성국 대표를 초청하여 제133회 명사초청 초찬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홍성국 대표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조선업, 자동차제조 산업이 국가규모에 비해 규모가 매우 커졌으나, 중국이 값싼 노동력으로 전세계 제조업을 독식하면서 2배이상 성장을 거둬주고 있다”고 말하며, 인구감소로 인하여 수축사회로 들어서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미래의 대비책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또한 앞으로의 한국은 “엄청난 성장을 하고있는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부진했던 내수시장과 특화된 관광 및 서비스업 등에서 출구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사회적비용으로 지불되지 않았던 안전비

용(정수기, 수도관연결, 가스, 원자력 폐기물, 화재감시 등)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어 우리사회가 불황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욕망을 줄이고 소유를 줄이더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것이 시급한 해법”이라며 이날 강의를 마무리 지었다.

홍성국 대표는 1986년 대우증권에 입사하여 30여 년간 투자분석부와 리서치 센터에 몸 담았고 2014년 미래에셋대우 CEO를 역임한 한국 1세대 애널리스트로 꼽힌다.

강연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전체적인 대한민국 경제의 전환기를 어떠한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와 도래한 경제수축사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영인아카데미총동문 합동 강의

김종두 _ 세광건설(주) 대표이사

일시_ 2019. 6.19(수) 장소_ 용인상공회의소 세미나실

용인상공회의소 경영인아카데미 총동문회에서는 매년 합동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년에는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며 제8기 회장인 세광건설(주) 김종두 대표이사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행사에는 용인상공회의소 서석홍 회장, 경영인아카데미 총동문회 김동훈 회장 등 원우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19일 본 회의소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다.

김종두 회장은 한국전력공사에 다녔던 경력을 바탕으로 고압선과 철탑이 많기로 유명한 용인에 1999년 세광건설(주)를 설립하여 전기·소방공사 및 보수공사 분야에 걸쳐 용인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시켜 운영하고 있다.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이라는 슬로건으로 노력해 국내 최고의 전기관련 시공업체로 성장하였으며, 현재는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회 회장으로 2,800여 전기관련 기업의 권익보호와 공익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고등학교에 전기과로 입학 후 유도선수가 꿈이었던 김종두



회장은 유도대(용인대 전신)로 진학하길 희망하였지만 불의의 사고로 수술대에 오른 뒤로는 꿈을 접고 한전에 입사하였다. 그러나 입사후에도 생사를 걸어야하는 보수반에 근무하며 노무직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용인지부로 자리를 옮기고 이어서 퇴사를 하였다. 김 회장은 “후발주자로서 최고의 신뢰성과 경험을 통하여 전기공사, 보수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현재 국내 전기 및 소방 설비, 점검보수 분야의 최고의 기업이 되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종두 회장은 10대에 본인의 꿈을 잃고 현재에 이르게했던 세가지 좌우명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 좌절하지 마라”, “둘째. 용기있게 결단하라”, “셋째. 더 넓은 눈으로 세상을 보라”라며 각 동문들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였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간담회

용인상공회의소 서석홍 회장은 2019년 7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간담회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겸 용인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조 정책실장,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비서관 등 34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날 서석홍 회장은 농지전용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줄 것과 토지개발이익 부담금도 500평 이하 모든 중소기업에게 면제 또는 분납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경영인아카데미 10기 회장단 간담회

용인상공회의소 서석홍 회장은 7월 25일, 경영인아카데미 제10기 회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여하여 10기(회장 나준수) 원우들의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용인지역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과 적극적인 교류를 도모하는 자리를 가졌다.

용인세무서-용인상공회의소 간담회

용인상공회의소 서석홍 회장은 8월 12일 윤경필 용인세무서장과 용인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석홍 회장은 “기업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일본정부의 수출규제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세무서에서 세제를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윤경필 용인세무서장은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납부기한연장, 체납 처분유예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고 안내하였으며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용인세무서에서 직접 상담하고 지원해 드리고 있다”고 하였다.



용인상공회의소 상임위원회



지난 8월 27일 본 회의소 회의실에서 제4차 상임위원회를 재적의원 22명 중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안건으로는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하여 각 부서를 본부 체제로 하는 개정(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으로 검정인원이 전년대비 약 50% 이상 증가하여 수입, 지출에 대한 추경(안)을 승인하였다.

또한 쾌적한 수검 환경 조성을 위한 상설 검정장 이전 설치와 회관 진입로 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2019년 8월 용인회 참석하여 기업애로 전달

용인상공회의소 서석홍 회장은 8월 27일 용인시에서 주관하는 용인지역 기관단체장 협의회인 용인회에 참석하여,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역북동 용인소방서 일대 자연녹지지역의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하였으며, 용인지역 기업의 어려움인 폐기물 재활용기업의 규제 완화에 대하여 기업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

용인동부경찰서-용인상공회의소 간담회

용인상공회의소 서석홍 회장은 8월 12일 신임 김기현 용인동부경찰서장과 용인상공회의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현 용인동부경찰서장 및 용인상공회의소 서석홍 회장과 부회장단이 참석하여 지역 내 다양한 현안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용인지역 특성상 방법 사각지역에 있는 기업의 순찰을 강화하고 CCTV 확보를 통한 치안 확충 등을 주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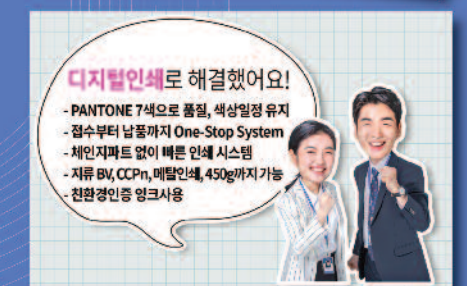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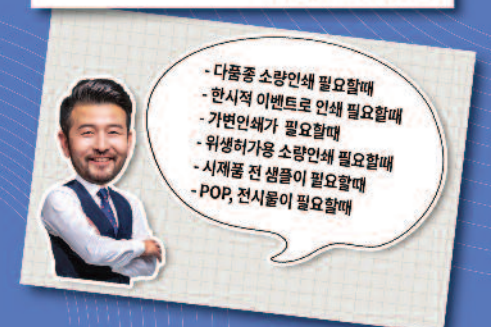
용인시 여성단체협의회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용인상공회의소 서석홍 회장은 용인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용인지역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바자회에 용인지역 기업을 대표하여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였다.

| 서석홍 회장 동정 |

- 중소기업중앙회 「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2019.6.26~29)
- 한국PP섬유공업협동조합 전지세미나 (2019.7.12~15)
-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2019.7.17~22)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간담회 (2019.7.22)
- 용인상공회의소 의원세미나 (2019.8.3~6)
- 대국경북도민회 회장단 대가야문화(고령) 탐방 (2019.8.20)
- 경기도 기우회 8월 월례회의 (2019.8.30)

아직도 몰랐나요?
패키지 디지털 인쇄기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 상 / 의 / 단 / 신 /



2019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실무 교육

회원사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11일~12일(2일)에 걸쳐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새로운 법규 전달을 위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실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부가가치세 개론, 세금계산서와 영수증발급, 매출,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세표준, 영세율 등 기업에서 필요한 세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송담대학교 IT플러스 500명 응시

용인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30일, 6월 5일 2일간 용인송담대학교 재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IT Plus 시험을 시행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공인민간자격인 IT Plus는 기업업무와 학습을 위해 필요한 문서작성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한글, MS Excel, PowerPoint, Access 의 전반적인 기능을 이해하고 직무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검증한다.

용인상공회의소는 지난해 용인송담대학교와 협업을 통하여 연 2000여 명이 응시하여 지역기업의 인재발굴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IT Plus 시험은 금년도부터 상설수검장에서 개최하여 해당 자격의 활성화 및 직무능력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상공회의소 국가검정상설검장 이전

용인상공회의소는 2019년 8월 본 회의소 2층으로 상설검정장을 이전하였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되던 지하1층 상설검정장을 최근 수검인원의 증가와, 대기장소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전하였다. 이번 검정장 이전으로 수험생들에게 쾌적한 수험환경을 제공하여 수험인원 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상설검정장에서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인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전산회계운영사, 상공회의소 한자 시험이 매일 시행되며 연간 13,000여 명이 응시하고 있다.



엑셀 초·중급 실무교육

9월 24일~25일 양일에 걸쳐 관내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엑셀 초·중급 실무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날 강의는 본 회관 2층 상설 수검장에서 실시되어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으며, '자주 사용되는 함수 익히기', '수식으로 동적 차트 만들기',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의 내용으로 강연되었다.

직무능력 향상 찾아가는 기업교육

용인상공회의소에서는 회원업체 대상으로 업무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찾아가는 기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법정 의무 교육으로는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정보보호 교육', 일반 교육으로는 '비즈니스 매너', '커뮤니케이션 스킬', '리더십', '이미지메이킹 및 CS교육' 등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강의주제 : 자기개발 및 조직문화 개선



(주)씨티케이(2019.9.2)

▶ 강의주제 : 법정 의무교육

-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정보보호 교육



(주)만텍(2019.9.2)



용인상공회의소

하반기 교육 일정 안내

1. 하루에 완성하는 재무제표 이해와 분석&재무비율 분석 교육

- 일시: 9.30(월) 14:00~18:00(4시간)
- 장소: 용인상공회의소
- 교육비: 회원사(무료), 비회원사(88,000원)
- 강사: 최재윤 세무사(세무법인 리젠 기업세무팀 근무/ 세무그룹 의정 대표세무사)
- 주요내용

회계의 기초 개념	• 회계와 재무제표 • 자산 및 부채와 자본 • 수익과 비용 •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관계
재무제표 분석	• 재무제표분석의 목적 • 유동성분석/안전성 분석 • 수익성 분석/활동성분석 및 성장성 분석

2. 용인시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자 교육

- 일시: 2019. 10.16(수) 14:00
- 장소: 용인상공회의소
- 주요내용: 직장내 매너교육 • 파트너십 관계형성 • K-Test(직업진로검사)

3. 팀장급 관리자를 위한 성과관리 강화 교육

- 일시: 10.24(목)~10.25(금) 09:00~18:00 (2일, 입소교육)
- 장소: 대웅경영개발연구원
- 강사: 1일차 (강래경 교수), 2일차 (전경혜 교수)
- 교육비: 회원사(일부지원), 비회원사(자부담)
- 내용: • 성과관리의 이해 • 전략적 수행지원 • 올바른 인사 평가와 육성면담 등

4. 엑셀데이터수집 및 분석 교육

- 일시: 2019. 11.11(월)~11.12(화) 14:00 ~ 19:00
- 장소: 용인상공회의소
- 강사: 문미현 강사 (경기도기술학교)
- 교육비: 무료

5. 2020년 신고대비 법인결산과 세무조정 실무 교육

- 일시: 11.19(화)~11.20(수) 14:00~18:00
- 장소: 용인상공회의소
- 교육비: 회원사(무료), 비회원사(132,000원, VAT 포함)

6.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

- 일시: 1차 2019. 12.5(목) 14:00~18:00 / 2차 12.6(금) 14:00~18:00
- 장소: 용인상공회의소
- 교육비: 회원사(무료), 비회원사 (88,000원, VAT 포함)

※ 교육 문의는 용인상공회의소 경영지원본부(031-332-9812) 문의 부탁드립니다.
※ 상기일정 및 내용들은 사정에의해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 다만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관세법 및 관세환급특례법을 위반하였거나, 관세 등 조세 체납하는 경우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일괄납부업체 지정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HS 6단위 소호 회신제도’ 신설

관세청 세원심사과 (☎ 042-714-7642)

- 적용대상은 FTA 원산지 확인을 위한 수출물품으로,
 - 신청방법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신청사유’ 항목란에 ‘수출물품 6단위 소호 확인’을 체크하면 됩니다.
- 이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정한 법정기간(30일)보다 단축된 15일 이내 심사하여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중소기업 등의 특허활용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 042-481-57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기관

- 중소기업 등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특허권 등을 신탁하면,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수탁한 특허권 관리와 기술 이전·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수탁하더라도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연차등록료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 2019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 등록한 특허권 등의 연차등록료도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특허권 등의 수탁 후의 유지비용 경감 정책에 따라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수탁하고 있는 중소기업 특허권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대폭 강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042-481-5842)

- 종전에는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보상하면 된다는인식이 형성되어 지식재산권 침해의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 이제는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높여, 지식재산의 침해를 근절하고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밖에도 특허권자의 입증에 용이하도록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인정요건 완화’ 하는 등 지식재산의 보호수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동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특허청 심판정책과 (☎ 042-481-8444)

- 기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소기업 등 경제적 사정으로 특허심판에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하며
 -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심판 사건이 끝난 후에 심판수수료(심판청구료, 정정 청구료)도 반환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자는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또는 답변서 제출기일의 만료일까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

환경부 화학안전과 (☎ 044-201-6847)

- 올해 11월부터, 고독성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해당 물질의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업에서 제출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공개될 예정이며,
 - 국민께서는 지역의 배출저감 실적과 향후 저감계획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획서 공개, 배출현황 점검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지역 사회가 주체가 되어 배출저감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화학안전에 대한 지역의 관심 및 역량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자자체 등이 발주한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044-203-5156)

- 전기공사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중소 전기공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하여 전기공사업법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대기업 기준 설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과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등
 -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 설정 : 국가 및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직영기업 등이 발주하는 전기공사 중 10억원(공사예정금액) 미만의 전기공사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예정이지만, 시행일 이전에 공고된 입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4차산업 연관 신기술 등 엔지니어링기술 범위 유연화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044-203-4555)

- 4차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 기술의 출현이 예상됨에 따라 현행 기술분야에 탄력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 현행 법령상 엔지니어링사업자는 15개 부문(기계, 선박, 산업 등) 48개 전문분야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 新기술 등을 활용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경우, 사업자 및 기술자의 업계 진입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 더불어 새로운 기술이 추가되면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 신고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관련학과, 경력 등의 인정범위 등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 관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우선심사 대상 확대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042-481-8243)

- 우선심사대상이 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를 7개에서 16개 분야로 확대 하였습니다.
 - 기존 ①인공지능 ②사물인터넷 ③차원 프린팅 ④자율주행차 ⑤빅데이터 ⑥클라우드컴퓨팅 ⑦지능형로봇
 - 추가 ⑧스마트시티 ⑨가상·증강현실 ⑩혁신신약 ⑪신재생에너지 ⑫맞춤형 헬스케어 ⑬드론 ⑭차세대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 개정내용은 2019년 6월 10일부터 우선심사 신청되는 출원에 대해서 적용되나, 2019년 6월 10일전에 우선심사 신청되는 출원은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4차산업 연관 신기술 등 엔지니어링기술 범위 유연화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044-203-4555)

- 4차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 기술의 출현이 예상됨에 따라 현행 기술분야에 탄력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 현행 법령상 엔지니어링사업자는 15개 부문(기계, 선박, 산업 등) 48개 전문분야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 新기술 등을 활용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경우, 사업자 및 기술자의 업계 진입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 더불어 새로운 기술이 추가되면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 신고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관련학과, 경력 등의 인정범위 등도 함께 마련 할 계획입니다.
- 관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044-202-7213)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의 임금감소액 보전분 지원500인 초과 노선버스 업종의 경우 기존 재직자의 임금 감소액 보전분 지원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면서 기존 임금보전 재직자 1인당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던 사업장은 최대 960만 원까지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 ① 주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취업규칙·단체협약 개정 등 사유 개정)
 - ② 제도 도입 후 법정 근로시간 준수
 - ③ 제도 도입 후 전자적 방식 근태 관리
 - ④ 근로자 수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순선

(주)성창베네피나 대표이사

Benefina (주)성창베네피나

“주방기구를 대표하는 세계적 선도기업”

1985년까지만 해도 전업주부였다. 우연한 기회에 자본금 50만원을 들고 성창금속이라는 회사를 차렸다. 사업은 고기구이 판 등 단순 주방용품 제조 판매였다. 1994년 성창마트, 2001년 (주)성창베네피나로 성장에 걸맞게 상호를 바꿔가면서 오늘날 100대 수출기업 신화를 만들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순선 (주)성창베네피나 대표이사다.

지금은 탈·부착 손잡이로 조리과 요리가 용이한 주방기구, 세계 최초로 제작된 알루미늄 전자 유도용 조리용기, 온도에 따라 손잡이 색깔이 바뀌는 프라이팬 등으로 세계 각국의 주부들을 만나고 있지만 이순선 대표이사의 출발은 그저 평범했다.

“1986년 아시안게임 때였어요. 외국관광객 발길이 잦아지면서 불고기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석판을 만들면 성공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더군요. 주머니에 든 전 재산 50만원을 가지고 주물공장을 찾아 나선 것이 첫 발걸음이었지요.”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항상 소비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불편하고 개선해야 하는가를 생각했고 현장에서 답을 구했다. 무쇠 판에 고기를 굽던 시절에 기름받이가 있는 구이 판을 선보였다. 먼저 불판구이 식당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생산된 석판을 종로 일대의 식당에 써보라고 돌렸다. 큰 정육점에도 찾아가 무료로 나눠줬다. 20개를 만들어 판매한 돈으로 다시 50개를 찍었다. 돈이 들어오면 또다시 100개를 찍어냈다. 그야말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전략이었다.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현장에서 직접 시연을 통해 품질의 우수성을 확인시키고 입소문을 내게 하는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이었다. “일당을 주고 영업사원을 모집했어요. 사람 많은 시장이나 회사 앞에서 제가 만든 불고기 석판에 고기를 굽게 했죠. 당시엔 네모난 석판 위에 은박 호일을 깔고 기름 튀어가며 고기를 구워먹었어요. 그런데 구멍 난 석판 위에 고기를 구우니까 저절로 기름도 빠지고 불에 직접 닿으니까 맛있게 거든요.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발명이지만 사용자에게 참으로 편리한 물건이었다. 요리에 적합한 온도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팬이 지나치게 달궈지는 것을 막아주는 온도감응 표시기능 손잡이도 실생활에서 착안했다. 답은 늘 ‘실사구시’적 마인드에 있었다.

현장에서 보고 답을 얻은 ‘여성 발명가’

이순선 (주)성창베네피나 대표이사가 주방기구 관련 특허 및 의장·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는 제품만도 30여 개에 달한다. 육류구이 석쇠부터 시작해 탈부착 손잡이로 조리과 보관이 가능한 주방용기, 세계 최초로 제작된 알루미늄 전자유도용 조리용기, 온도에 따라 손잡이의 색깔이 변하는 프라이팬 등 이 모두가 이순선 대표의 아이디어로 히트한 ‘성창’의 제품이다.

흔히 손잡이 탈부착이 가능한 조리 용기는 외국의 모기업이 선점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성창’이 이미 여러

해 전 일본특허를 따냈다. 이를 통해 한 해 100억 원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내수보다는 수출주도형 기업답게 수출규모는 현재 국내 100대 기업의 순위에 들 정도다. 생산품의 90%는 일본지역에 수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듀폰사와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플라티늄 코팅 제작 물질인 ‘테프론’을 사용해 400여 종류가 넘는 주방기구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 (주)성창베네피나가 주방기구 업계에서 세계 흐름을 주도하고 수출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무엇을, 누구에게 팔 것인가. 그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사업은 성공할 수 있죠.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도 식당과 정육점이라는 마켓 지표가 정확히 맞았고, 지금은 주문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일본 바이어(buyer) 하나하나의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소비자가 원하는 색깔, 용기, 기능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국내시장의 호응을 발판으로 일본과 미국 등지에 수출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일본 선적을 하려해도 창고가 없어 직접

포장한 석판들을 사무실에서 밤새 꼬박 지키기도 했지만 지금은 옛말일 뿐이다.

또 하나의 비결은 약속이다. 수십 년 사업가로 살아오면서 ‘말에 대한 약속’은 정확히 지켜왔다.

“한 번 납품 의뢰를 받으면 마감시간과 금액, 단독 거래 등의 약속은 반드시 지켰죠. 사실 여사장으로서 이 정도 오기까지 제게 남은 것은 ‘신뢰’라는 재산이에요. 중국이 아무리 값싼 제품으로 공격하더라도 수십 년 쌓아온 저와 제품에 대한 믿음의 벽을 넘을 순 없을 겁니다.”

소소한 약속일지언정 30분 이상 항상 먼저 나가서 기다리는 이순선 대표이사의 철칙이 여전하다.

수출주도 기업에서 시작해 내수시장으로

그간 일본 수출에 주력했던 것은 한국 주부들이 제품의 질보다는 외제라는 브랜드 가치를 우선으로 치는 잘못된 소비 풍토가 한 몫 했다. “일본 주부들은 주방기구를 고를 때 제품의 질과 기능을 따지고, 구입 후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불



만사항이 적어요. 순전히 품질로만 평가를 받아요.” 결국 품질의 우수성만 입증된다면 다수의 상품들이 경쟁하는 일본 시장 진출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은 적중했다.

최근 이 대표는 일본 시장에서 얻은 명성을 바탕으로 외국 제품이 독점하다시피 한 내수시장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험적으로 추진한 백화점 특별전에서도 주부들의 호응이 폭발적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질적인 면으로 국내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은 고무적이다.

이처럼 국내를 넘나들며 세계 주방기구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주)성창베네피나 이순선 대표. 그의 진가와 수출 공로는 수많은 수상경력을 통해 확인된다. 1994년 11월 무역의 날 5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데 이어 1996년 3월에는 무역의 날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2005년에는 누적 수출 1억 달러도 돌파했다. 2017년 제44회 상공의 날을 맞이하여 그간 공로를 인정받아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 대표의 또 다른 기록은 여성기업인으로서 상공회의소 130년 역사상 최초로 회장에 올랐다는 점이다. 1991년 설립된 용인상공회의소는 전국 73개의 법정 민간종합경제단체

인 ‘상의’ 가운데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순선 대표이사가 용인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면서 내부 문화 역시 바뀌었다. 취임식도 격식보단 음악회를 결정한 품격과 예술향기가 흐르는 색다른 행사로 치러 많은 참석자들에게 신선함과 감동을 주었다. 용인 문화계에도 관심을 가지고 2014년 초에 용인문화재단과 용인상공회의소 사이에 협약서(MOU)를 체결하고 상공회의소의 지역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였다.

전국 최초 여성 상의 회장…경기공동모금회 회장까지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매우 크다. 용인상공회의소 산하에 경영인아카데미 강좌를 열어 매년 1기씩 배출하고 있다. 회원사 임직원의 역량향상을 위한 많은 교육지원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순선 대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구성원들의 ‘맨 파워’에 달려있죠. 또한 융합의 시대이니만큼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결국 적재적소에 필요한 교육지원만이 임직원



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실제 용인상공회의소는 연간 약 60여건의 교육과 연수 그리고 세미나 등을 연다. 연 평균 3,000여 명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여성CEO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그였기에 기업 경영인을 꿈꾸는 여성들에게도 관심이 많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섬세하고 직관력과 언어감각이 뛰어나 남성들과 다른 경쟁력이 있어요. 현대사회에서는 융합적사고와 창의력이 기업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과 다른 천부적인 능력에 따듯한 리더십과 도전정신, 추진력, 끈기를 더한다면 좀 더 많은 여성CEO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꿈을 갖고 있는 여성들의 과감한 도전과 창의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있어요.”

용인상공회의소 제8대, 9대 회장을 역임한 이순선 대표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6대 신임회장으로 취임해 오는 2020년까지 이끌어가게 됐다. 여성CEO를 넘어 용인 기업인 정신의 모범이자 수출시장의 역군으로 경제보국에도 앞장서고 있는 이순선 대표. 항상 시대를 앞서온 그였기에 앞날이 늘 궁금하고 또한 기대된다.



용인상공회의소 회의실 대관 안내

세미나실 (100석 규모) 각종 세미나, 교육, 워크숍 가능



소강의실 (40석 규모) 각종 세미나, 교육, 워크숍 가능



시설
현황

- ▶ 동시주차 100대 가능, 가변식 좌석운영 가능
- ▶ 프로젝터, 무선마이크4대, 유선마이크 4대,
- ▶ 교육테이블 50개(100석 규모), 원형테이블 11개보유, 의자 150개

문의

용인상공회의소
기획관리본부
031-332-9812

LIG넥스원, 5회 연속'CMMI 레벨 5' 인증 “세계 최고 수준 국방R&D 역량 확인”

‘07년 국내 방산업계 최초로 레벨5 획득 이후, 5회 연속 인증 성공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R&D 역량을 인정받으며, 국내 방산업계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될 것

LIG넥스원(대표 김지찬)이 연구개발 역량평가의 국제적 기준인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의 최고 단계인 레벨 5의 5회 연속 인증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CMMI는 美 국방성의 의뢰로 카네기멜론 대학의 소프트웨어 공학연구소(SEI)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개발 조직 성숙도 평가 프로그램이다. 레벨 5는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과 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한 조직에게 주어지는 등급으로, 전 세계 인증기업 중 약 9%만이

보유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LIG넥스원은 연구개발사업관리시스템과 개발품질보증활동체계를 연구개발 프로세스에 충분히 내재화하여 프로젝트 성과 및 무기체계 신뢰성을 향상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07년 국내 방산업계 최초로 CMMI 레벨 5를 획득한 바 있는 LIG넥스원은 보잉·록히드마틴·BAE 등의 글로벌 방산기업과 동일한 레벨의 R&D 역량을 5회 연속으로 인정받게 된 만큼, 현재 추진 중인 국내외 사업은 물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 국방기술 개발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IG넥스원 김지찬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과 혁신을 통해 첨단 국산무기 개발에 기여하는 방산업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CMMI 최상위 등급인 레벨 5 재인증으로 연구개발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IG넥스원(대표 김지찬)이 연구개발 역량평가의 국제적 기준인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의 최고 단계인 레벨 5의 5회 연속 인증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LIG넥스원 임직원들이 판교R&D센터에서 CMMI 레벨 5 인증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누비지오^{***}mall

누비지오, 함께나눔데이 침구 기부 사회공헌활동 펼쳐

온라인 침구쇼핑몰 브랜드 ‘누비지오’가 지난 5월 함께나눔데이 침구 기부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함께나눔데이는 지난 3월 진행한 창립 22주년 기념 이벤트인 ‘210원 행복나눔DAY’ 행사의 연장이며, 당시 수익금 중 일부를 함께나눔데이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프로젝트이다.



3월 ‘토퍼210원’ 판매 행사와 함께 진행된 NU-BIZIO 함께나눔데이 이벤트에는 누비지오 침구를 함께 나눌 이웃을 사연과 함께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누비지오 침구를 기부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사연접수와 회원 추천, 선정과 지원 등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계자들의 호평을 이끌어 내었다.

함께나눔데이 이벤트 수기공모 당첨자는 평소 남다른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채영미 고객이며 고객이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는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전북 마음모아 봉사단’이다. 이 단체는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엄마들이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모아 운영하는 단체로, 보육원 봉사활동을 통해 보육원에서 성장하다 성인이 되어 자립하는 이들에 힘을 더하고 있다. 누비지오는 전북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전북 마음모아 봉사단’과 ‘전북 엄마세상 봉사단’에 총 48세트의

침구류 외 커튼 기부 및 이불과 커튼을 함께 설치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누비지오 김동훈 대표는 “이번 행복나눔데이 행사는 22주년 동안 누비지오의 성장을 지켜봐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 드리는 행사로서, 서로 도와가며 봉사하는 우리 고객님들을 격려하고자 고객의 기부처에 작은 선물을 주자는 의미로 기획되었다”며 “앞으로는 특색 있고 보람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누비지오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온라인 침구 쇼핑몰로 인식되고 있다. 침구·커튼·베개솜 등 디자인 개발부터 원단제작 및 제품생산을 원스톱으로 운영해 거품 없는 유통 판매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덕분이다.

특히 누비지오의 ‘먼지없는 이불’은 집먼지진드기 방지, 생활먼지 차단 기능으로 FITI 시험 연구원 시험 인증을 받은 대표 기능성 침구로 알려져 있다.

(주)대신환경기술, 일자리 창출 기여한 공로 대통령상 수상

경기지역 수처리 시설 공사·관리대행 전문기업으로 1997년 설립된 (주)대신환경기술(대표 전성훈)이 대대적인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주)대신환경기술 전성훈 대표는 2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주)대신환경기술이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등 공로를 인정받아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05년 설립된 이 회사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 2016년 62억 원, 2017년에는 131억 원, 지난해 1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와 더불어 사업영역 또한 경기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지난 2017년 106명이던 직원수가 지난해 153명으로 1년만에 44%의 고용증가율을 기록하는 기업을 토했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보험 자료 분석, 국민추천 등으로 후보 기업을 발굴하고 법위반 여부 조회, 현장조사, 선정심사위원회 등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지난해 100개 기업 선정을 시작으로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됐다. 전성훈 대표는 “큰 상을 받게돼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ioLeaders 바이오리더스, 프랑스 베토퀴놀과 물질이전 합의

바이오리더스는 동물의약품 전문기업인 프랑스 베토퀴놀과 물질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바이오리더스는 지난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바이오 USA 2019'에 참가해 30여개 글로벌 제약사들과 회의를 가졌다. 바이오리더스와 회의를 진행한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은 미국의 페링, 중국의 푸싱, 일본의 미쓰비시다나베 등이다.

베토퀴놀은 바이오리더스가 자궁경부상피이형증 치료제로 개발 중인 'BLS-H01'의 기반물질 '폴리감마글루탐산'의 물질이전에 합의했다. 폴리감마글루탐산은 바이오리더스가 청국장의 바실러스균에서 추출해 개발한 면역증강·항바이러스 물질이다.

베토퀴놀은 폴리감마글루탐산을 이용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바이러스성 동물질병에 대해 가축의 면역력을 높이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등의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바이오리더스와 베토퀴놀은 이달 동물의약품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물질이전 협약(MTA)도 이어 맺을 예정이다. 베토퀴놀은 세계 9위 규모의 동물의약품 전문회사다.

바이오리더스 관계자는 “베토퀴놀은 임상 3상 허가를 받은 치료제 기반 물질을 이용해 동물의약품 개발로 활용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동물 실험에서 이미 효능이 확인된 물질인 만큼 항바이러스제 등 다양한 동물의약품으로의 개발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롯데칠성 '요랄라, 델몬트주스'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롯데칠성음료의 '요랄라 요구르트맛 스파클링'과 '델몬트주스 180ml 소병' 제품이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Dot Design Award) 2019' 패키징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인 위너(WINNER)로 선정됐다.

요랄라 요구르트맛 스파클링은 탄산의 청량감에 요구르트 발효액을 더해 상큼하고 달콤한 맛을 살린 제품으로, 제품명 또한 요구르트와 홍얼거림의 의성어 '라라(LaLa)'를 합성해 만들어졌다. 제품 디자인에 귀여운 캐릭터의 윙크하는 표정, 웃는 표정, 상큼한 표정 등 요랄라를 마셨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라벨, 뚜껑, 바코드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활용해 담아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양한 패턴들이



용기에 양각으로 인쇄되어 음료를 마시는 동안 입안에서 느껴지는 요구르트 맛과 탄산의 톡톡 쏘는 청량감이 손의 촉감으로 전해지도록 한 점도 주목을 받았다.

델몬트주스는 햇살을 가득 받고 자란 건강하고 신선한 과일을 원료로 사용한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태양을 모티브로 한 기하학적인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이다. 주스의 내용물 색상과 조화를 이루며 과일별 정체성이 드러나도록 삼각형 패턴 디자인이 적용되어 가시성을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곡선 구간이 없는 일자형 유리 용기를 활용해 내구성을 강화한 점도 돋보였다.

사용자 친화적 패키징 디자인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55년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 센터 주관으로 시작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의 'IDEA',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매년 제품 디자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콘셉트 등 3개 부문으로 나누고 디자인 혁신성, 기능성, 사용편리성, 심미성,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올해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5,500여 개 작품이 출품되어 경합을 벌였다.

2019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육가공식품 전문 브랜드 ‘마니커에프앤지’

마니커에프앤지가 9월 3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19 한국 소비자만족지수 1위’ 시상식에서 식품(닭고기가공식품) 부문에 선정됐다.

올해 2년 연속 수상한 마니커에프앤지는 2004년 설립 이후 앞선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튀김류, 구이류, 훈제류 등은 물론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HMR 제품까지, 다양한 종류의 가공품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업계 최초로 삼계탕과 삼계죽의 국제적 표준화에 성공한 마니커에프앤지는 일본, 동남아시아, 미국시장에 수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성공을 바탕으로 캐나다와 EU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삼계탕 제품이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



몰 아마존에 입점하면서 미국에서 식품 한류를 이끌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2019년 코스닥 시장 상장으로 브랜드에 신뢰를 더했으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면서 외식 프랜차이즈, 급식 등 B2B 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B2C 경로에서도 에어프라이어 전용브

랜드인 ‘에어프렌즈 시리즈’ 등을 개발했다.

마니커에프앤지 윤두현 대표는 “마니커에프앤지는 무한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앞선 제품으로 고객에게 건강과 편리를 제공하는 글로벌 종합 식품회사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신우, HP인디고 30000장비 국내최초 도입

화장품, 식품, 제약 패키지 모든것 완벽 구현

국내 디지털인쇄 시장은 다품종 소량 생산, 제품 주기 단축, 가변 데이터 처리 등의 이유로 그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패키징 시장에서의 성장이 주목 받고 있다. (주)신우(유문종 대표)는 33년 노하우로 설립된 화장품 패키지 전문회사로 기존 Analogo 인쇄방식을 벗어나 4차 산업인 30000 digital press 장비를 국내최초로 도입하였다.

주력생산 품목은 화장품 포장 자재인 단상자, 일개지함, 세트지함, 지관 등 다양한 인쇄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긴급제품과 샘플용 인쇄물을 디지털 인쇄기로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

최근 인쇄업의 물량이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수익구조가 위축되는 현시점에 무엇보다 혁신적인 변화와 대응할 수 있는 틈새시장이라 보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 출판용 디지털장비는 빠르게 도입되었으나 패키지 전용 디지털인쇄기는 (주)신우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방문해 격려하고 있다.

HP Indigo 30000 digital press는 LEP(Liquid electro photography) 기술을 통해 디지털 인쇄 장비 중 가장 좋은 인쇄 품질 구현이 가능한 인쇄기다. (주)신우는 HP Indigo 30000 도입을 통하여 최대 7개의 잉크 스테이션으로 가장 넓은 디지털 색 영역 인쇄 시 팬톤 에뮬레이션 및 스팟 색상(CMYK OVG & White) 완벽한 색상 & 출력 색상을 표현하기 위한 원샷 기술 원단 표면에 반전 또는 샌드위치 인쇄까지 가능하며, 자동화된 색상 관리 및 프레스에 맞춘 솔루션 변환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설치 및 체인지 파트 시간 최소화하여 고객들에게 적극 지원하고 있다.



프레시웨이 CJ프레시웨이, 경기 이천에 센트럴키친 신공장 설립

CJ프레시웨이가 경기 이천에 센트럴키친(CK) 신공장을 짓는다. 최근 가정간편식(HMR)과 단체급식 시장의 성장세로 전처리 식재료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맞춤형 식자재 경쟁력을 구축하면서 ‘초격차’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관련업체와 이천시 등에 따르면 CJ그룹의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전문기업 CJ프레시웨이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신대리 119번지 외 5필지에 CK공장을 신설한다. 공장 부지 9523㎡에 건축 면적 3971.04㎡ 규모다.

CK공장은 대량의 식재료를 전처리하거나 반조리 형태로 가공해 공급하는 중앙 집중식 조리시설이다. 기계화된 시스템을 통해 기존 대비 노동력 절감 효과와 식재료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반조리 형태로 규격화, 일반화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 맛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번 CK공장 설립은 CJ프레시웨이의 단체급식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식품 제조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이 아닌 자체 생산공장을 세우는 것은 처음이다.

그간 CJ프레시웨이는 급성장세인 가정간편식(HMR)과 단체급식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식자재 제공의 기틀을 마련해왔다. 올해 3월 농산물 전처리 전문업체 제이팜스·제이엔푸드를 인수하면서 운영 효율화를 꾀했다. 지난 2016년



에는 소스류 및 조미식품 전문기업 송림푸드를 인수해 자체 제품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

CJ프레시웨이는 CK공장 준공으로 본격적인 시너지를 노리면서 수익구조 개선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막대한 유통망을 기반으로 제조 설비까지 확충하면서 ‘초격차’ 전략에 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한화투자증권은 “단체급식 효율화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외식 식자재 수주 경쟁력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현재보다 더욱 높은 시장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며 “CK설비 마무리 이후 더욱 높은 경쟁력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성장세는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윌링스, 태양광 전력변환장치 제조기업 코스닥 상장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전문 기업 윌링스(대표 안강순)가 코스타에 지난 7월 25일 상장하였다.

윌링스는 태양광 전력변환장치 개발 및 제조가 주력 사업이다. 태양전지 모듈에서 생산된 직류를 교류전력으로 변환

시키는 장치인 태양광 인버터를 개발한다.

또 ESS(에너지저장장치)용 PCS에 대해 자체개발 기술과 판매 능력을 갖추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계 및 조달, 공사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EPC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주)에코니티, 한국대표 분리막 국산화 선도기업 ‘우뚛’

1998년 설립된 (주)에코니티(대표이사 장문석)는 한국을 대표하는 분리막(멤브레인) 기술 개발 선도업체로서, 에코니티에서 개발, 상용화한 ‘분리막을 이용한 수처리기술-KSMBR 공법’은 하수를 머리카락 두께



의 1/200의 아주 작은 구멍으로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안정적으로 만족시키고, 오염 총량규제와 물 재이용 수요증대에 대응하는 기술로 호평받고 있다. 이 회사는 현재 국내 하·폐수처리기술 중 MBR(Membrane Bio-reactor)분야 실적 1위인 ‘KSMBR 공법’ 외 20여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분리막 기술의 특징은 크게 ‘부지 절감과 재이용수 수준의 우수한 처리수질’이다. 그동안 KSMBR 공법을 앞세워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도, 수원시 등 전국 지자체에 약 2,000여 곳의 하수처리시설에 분리막을 적용했다.

에코니티의 분리막이 적용된 대표 시설로는 인천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6만5,000톤/일), 화성 송산 그린시티 공공하수처리시설(8만4,000톤/일)이 있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택지개발지구인 수원 호매실지구의 황구지천 하수처리장(4만5,000톤/일), 인천시 영종 송산 수질복원센터(3만톤/일), 구리시 갈매 수질복원센터(1만1,000톤/일) 등은 신도시 주거지역 한복판에 완전지하화 구조물로 설계를 하고,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많은 주민들이 방문하는 친환경처리시설로 거듭났다. 이들 지자체들은 분리막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기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탈피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공간으로 변신에 성공한 것이다.

특히, 분리막을 적용한 하·폐수처리공법은 처리수가 재이용에 바로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아산 탕정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4만5,000톤/일)의 경우 대표적인 민·관합동 물재이용 사업이다. 2016년부터 가동한 아산물환경센터는 국내 최초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 인근 아산티스플레이시티에 산업용수로 공급되고 있다. 하수처리공정에 적용된 에코니티 분리막과 후단 재이용시설을 거쳐 수돗물보다 더 높은 수질기준을 충족시켰다.

에코니티는 “현재 하수처리수를 인근 반도체공장에 공업용수로 공급하고 있으며, 물이 부족한 충남지역에서 대규모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재이용사업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에코니티는 미국과 말레이시아의 수처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증 및 기술등록을 마쳤으며, 현지 유력 환경업체와 MOU 및 대리점 계약을 맺고, 해외영업을 전개중에 있다.

미국, 중국, 카자흐스탄, 대만 등의 환경기초시설에 멤브레인을 납품에 성공한 에코니티는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200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장 계약을 위해 막바지 협상중에 있다.

하이트진로음료, 감칠맛 살리고 감성 입혀 ‘새벽햇개’ 리뉴얼

하이트진로음료(대표 조운호)는 여성 소비자층을 겨냥해 맛부터 패키지 디자인까지 전면 개선한 숙취 해소 차음료 ‘새벽햇개’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처음 출시한 ‘새벽햇개’는 음주 후 숙취 제거도 중요하지만 숙취로 인한 갈증을 달래주는 기능도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된 제품이다. 음주 후 새벽녘 머리맡에 두고 마시는 ‘현대판 자리끼’를 콘셉트로 음주 전후 숙취와 과음 후 갈증까지 개운하게 풀어주는 전천후 숙취해소 차음료이다.

새로워진 ‘새벽햇개’는 맛의 5원미로 알려진 ‘감칠맛’을 살려 기존 햇개차 음료의 맛이 부담스러웠던 여성 소비자들도 부담 없이 음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햇개차를 음주 전후는 물론 일상 생활에서도 갈증해소와 수분보충을 위해 마실 수 있도록 능이버섯추출물 등을 사용해 부드러운 감칠맛이 나는 ‘맛있는 햇개차 음료’를 실현시켰다.

‘새벽햇개’는 알코올 해독,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국내산 햇개나무열매추출액에 간 보호 효과를 높여주는 국내산 찹쌀 농축액을 추가해 숙취해소용 차음료로서 경쟁력도 높였다. 햇개와 찹쌀 알코올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알코올 탈수소효소(ADH)와 아세트 알데히드(ASDH) 활성을 촉진시켜 알코올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는 것을 도와준다.



또한 하이트진로음료는 ‘새벽햇개’를 아셉틱(Aseptic) 생산으로 전환하며 제품 안정성과 품질을 강화했다. 무균 충전 방식인 아셉틱 공법은 원료의 영양소를 최대한 유지하고 원료 고유의 맛과 향을 살릴 수 있는 생산 방식이다. 패키지 디자인 역시 여성 소비자들의 감성에 맞춰 깔끔하고 세련되게 다듬었다. 밝은 컬러의 라벨로 교체해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을 강조했으며 햇개나무열매를 일러스트로 처리해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했다. 용기는 기존 대비 20mL 증량한 520mL 페트 용기를 사용했다.

하이트진로음료 마케팅 관계자는 “저용량 드링크 타입의 숙취해소음료 시장은 현재 1,800억원 규모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숙취에 좋다고 알려진 햇개를 원료로 하는 RTD 차음료 제품의 경우에도 연 900억원 규모로 최근 10년간 성장을 지속하는 시장”이라며 “차음료 주 소비층인 2030 여성들이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숙취 및 갈증 해소 음료로 숙취해소음료 수요층과 차음료 수요층을 동시에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벽햇개’는 전국 편의점과 할인점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가격은 520mL 한 페트(PET)에 편의점가 기준 2,000원이다.

보이는 것 그 이상의 편리함, 청소기에 유러피안 감성을 더하다. ACE K9 무선 진공청소기

생활가전 전문기업 에이스전자(주) 주영종 대표는 디자인에서부터 기능까지 기존 라인과는 확연히 차별화된 신제품 '무선 진공청소기 K9' 런칭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에이스전자(주)의 신제품 K9은 내수 뿐만 아니라 글로벌 마켓 경쟁력을 강화 시키기 위해 이태리 디자이너와 합작하여 디자인에서부터 차별화에 나섰다.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K9은 9가지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영종 대표



흡입력의 핵심은 모터!
400W 인버터 모터의 강력함은 물론,
유해한 탄소와 미세먼지 발생 ZERO!

1분에 약 10만번 회전하는 파워 드라이브!
빠른 회전력으로 진공도와 밀착력을 높인 PA 극세사 롤브러
쉬의 결합 청소 후 바닥 잔여물 NO!

흡입력 조절 기능 버튼!
청소 환경에 따라 흡입 세기 조절이 3단계까지 가능하
여, 어떠한 조건에서도 강력한 퍼포먼스 그대로!

99.9% 미세먼지 차단!
5단계 필터링 시스템의 뛰어난 먼지 여과력으로
청소후에도 실내 공기오염이 ZERO!

안티 헤어 브러쉬 장착!
청소후에 브러쉬에 낀 머리카락과 반려동물의 털을 번거롭게 제거
할 필요가 없어 한결 더 가벼워진 청소!

상하로 조절이 가능한 본체!
사용자 체형에 맞게 위·아래 이동 가능한 본체와
인체공학적 손잡이로 청소시 손목부담 35% DOWN!

청소후 마무리도 쉽게!
원터치 먼지통 분리버튼으로 청소후
이물질도 한번에 CLEAR!

언제나 깨끗하게!
워셔블 필터 장착과 탈착식 먼지통 구조로 흐르는
물에 씻어만 주면 바로 새것처럼 깨끗한 청소준비 끝!

MULTI FUNCTION 거치대!
솔브러쉬, 이물브러쉬등 여러 액세서리를 깔끔하게 보관이 가능하
며, 보조 배터리까지 충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의 청소기 썬포테!

K9

K9의 개발 배경에는 고객들을 위한 마음이 담겨있다.

D사, L사, S사(400W급)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청소기들의 가격은 100만원 이상을 웃돈다.

누구나 한번쯤은 사용해 보고 싶지만 선뜻 구매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에이스전자(주)는 2년이상 8억원 가량의 개발비를 투자하며,
기능, 외관, 가성비를 모두 갖춘 K9을 40만원대에 출시할 예정이다.



ACE ELECTRONICS

에이스전자(주)의 23년 청소기 노하우!

이태리 디자이너의 유러피안 감성!

소비자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낸 청소기 K9

“최대 70분까지 청소 가능”

400W의 강력한 모터
최대 분당 100,000RPM의 회전하는 모터의 강력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까지 깔끔하게 청소하다!

배터리 사용시간
0 10 20 30 40 60(Min)
TURBO HIGH ECO

5중 필터
1차 사이클론으로 무거운 먼지 분리!
2차 스테인리스강 필터로 머리카락 및 입자가 굵은 먼지 분리!
9개의 먼지분리통을 통해 2차 사이클론을 형성하여 다시한번 먼지를 제거!
워셔블 필터와 HEPA 필터를 마지막으로 초미세먼지까지 99.97% 차단!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도 없앤 건강한 청소기!

HEPA 필터(5차)
워셔블 필터(4차)
2차 사이클론(3차)
스테인리스강(2차)
1차 사이클론(1차)

제 품 명 : ACE K9
전격전압 : 100~240V ~ 50~60 Hz 0.8A
배터리 사양 : Li-ion 28.8V/2500mAh
크 기 : 240(W)X170(D)X1115(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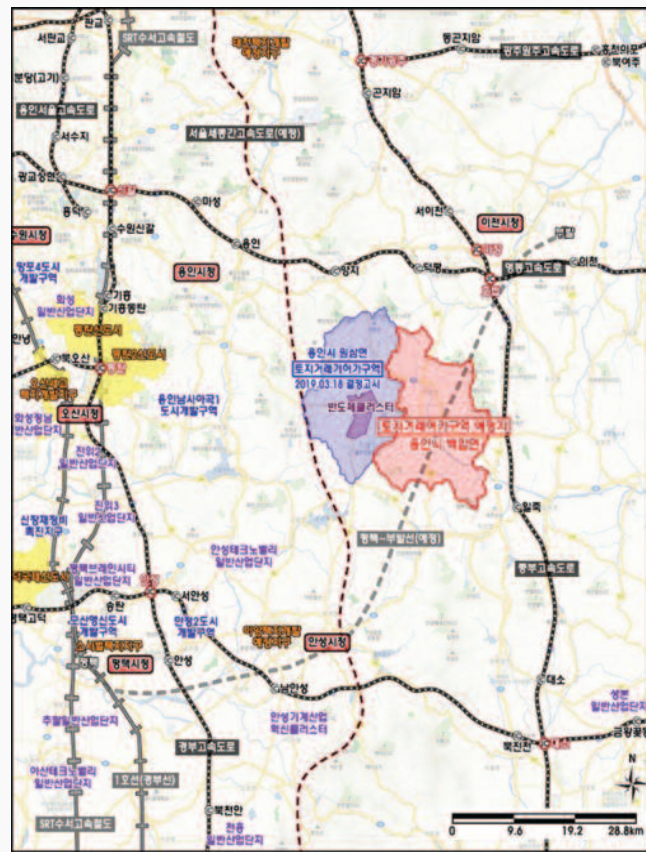
용인 백암면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거래 제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부지 일대 2022년 3월까지...기대심리 따른 투기 차단 위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65.7㎢(3만2540필지) 전역이 지난달 27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이달부터 토지거래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인근 원삼면이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지가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경기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으로 백암지역이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지난달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용인시에 통보했다. 이로써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지역(60.1㎢)을 포함해 125.8㎢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백암지역에 대한 지정 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2년 7개월이다.

백암면 지역은 3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원삼면과 함께 토지거래 시 제한을 받는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받는다.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농지 500㎡ △임야 1000㎡를 초과해 거래하는 토지다.

이번규 토지정보과장은 “백암면 일대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과 비교해 10배가량 높게 나타나는 등 투기 조짐이 보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안다”며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도 관계자도 “백암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조치를 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위치도



처인구 원삼면에 이어 백암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처인구 이동읍 덕성2산단 예정 부지 전경



용인도시공사, 민관합동방식 덕성2산업단지 본격 추진

11개사 사업참가의향서 제출 도시공사 참여 SPC 연내 설립

용인도시공사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하는 용인 2호 공공산업단지가 될 덕성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아래 덕성2산단)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최근 용인도시공사를 통해 덕성2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참가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모두 11개 기업이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의향서 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10월 7일까지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10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연내 우선협상대상자와 주주 간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사업자 80% 용인도시공사 20% 비율로 자본금 50억원 규모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앞서 시는 지난 6월 12일 제234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용인도시공사가 특수목적회사에 지분의 20%를 출자할 수 있도록 ‘덕성2일반산업단지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을 시의회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다.

덕성2산단은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596-3번지 일원(덕성1산단 북측) 29만5133㎡에 약 1444억원을 투자해 SPC 설립을 통한 민관합동방식으로 개발된다. 용인도시공사는 SPC

설립 자본금 50억원의 20%인 1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시와 도시공사는 올해 안에 SPC가 설립되면 내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단지 승인과 구역 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토지보상을 마치고 빠르면 2022년에 덕성2산단을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면 2024년 말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낙기 산단조성팀장은 “덕성2산단은 용인시의 첫 번째 공공산단인 인근의 용인테크노밸리와 함께 농촌마을인 덕성리를 대규모 산업도시로 바꾸게 될 것”이라며 “특히 원삼면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와 가가워 클러스터의 대규모 배후 산단 기능을 하면서 클러스터의 외연을 확장하는 효과까지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시는 이달 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덕성2산업단지 용지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소재·장비 제조업체에 우선 공급하기로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백군기 시장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국내 소재·장비업체를 육성할 필요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면서 “덕성2산업단지는 원삼면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국내 반도체 소재·장비 국산화의 전진기지로써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Z세대의 등장과 기업에 주는 시사점

최근 5세대(5G) 이동통신기술 개발에 따라 관련 업체들 간의 경쟁이 가열되는 추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글로벌 5G 부품 시장 동향과 국내 기업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홍기영
매경이코노미 국장



▶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1995년 이후 출생한 Z세대의 사회 진출이 시작됐다. 2019년 기준 만 24세 이하인 이들은 아직 대학생이거나 이제 갓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다. Z세대는 미래 소비의 주역이자 기업문화를 바꾸는 젊은 집단이다.

한마디로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잠재력을 가진 신세대다. Z세대는 2019년 전 세계 인구의 32%를 차지하며 막강한 사회적, 경제적 집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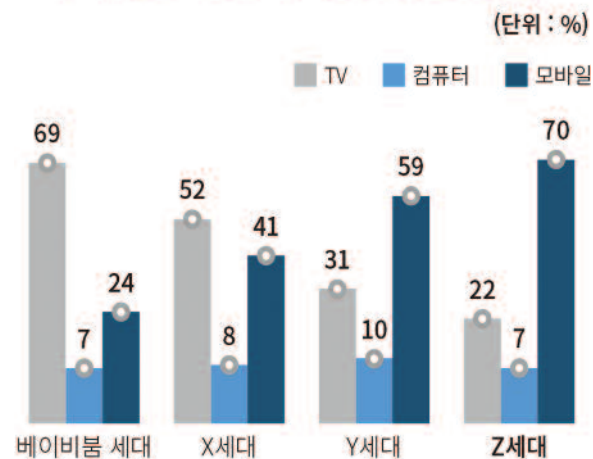
Z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스마트폰을 쥐고 자란 Z세대는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 ‘포노 사피엔스(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인류)’라는 별명을 얻었다.

소셜미디어 활용이 몸에 밴 Z세대는 스스로를 ‘디지털 원주민’이라 칭한다. 인터넷과 IT기기 사용에 익숙하고 SNS를 통한 인간관계 형성에 능하다. 미디어 이용시간은 모바일이 70%로 압도적이며 TV는 22%, 컴퓨터는 7%에 그친다. 한국투자증권 자료에 따르면 Z세대는 하루에 평균 68개의 동영상을 시청하며 검색도 유튜브 채널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미디어 기기 이용시간 비율]



※ 출처 : 닐슨·코리안클릭

환경과 사회 문제에 관심

Z세대는 거북이 코에 꽂혀 있는 플라스틱 빨대 동영상을 보고 분노하는 세대다. 환경오염, 인종차별, 성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불공정한 일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미디어로 공유하면서 바로잡고 싶어 한다. 또한 나의 소비가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기 때문에 기업이 환경과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심이 많다.

실제 미국의 CSR·마케팅 분석 기관 콘커뮤니케이션(Cone Communication)이 Z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89%가 사회·환경적 이슈에 동참하는 기업의 상품

을 구매하길 원하며 65%는 실제 구매할 때 기업의 CSR 노력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온라인 마켓과 가족 소비 주도

Z세대는 당장 소비시장의 ‘큰손’은 아니어도 ‘큰입’이 되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직 생산의 주역은 아니지만 SNS 활동이 활발하고 호불호가 뚜렷해 온라인상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Z세대의 모바일 제품 구매 비중은 50%가 넘는다. 이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력으로 식음료, 가정용품 등 가정 내 소비에도 영향력을 미친다.

Z세대 공략에 나선 기업 사례

Z세대가 많이 쓰는 SNS 활용

SNS를 마케팅 채널로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초 새 학기 시즌에 틱톡을 통해 휴대전화 요금의 절반을 할인해주는 행사를 홍보했다. 유명 크리에이터가 ‘반값송’을 부르는 영상이 틱톡에 올라가자 다른 이용자도 반값송을 부르며 춤을 추는 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약 2주 만에 반값송 해시태그(#)를 단 영상이 6천여 건 올라왔고 SKT 반값송 영상은 누적 조회수 620만 회를 기록하며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Z세대 언어문화 활용으로 화제가 된 인기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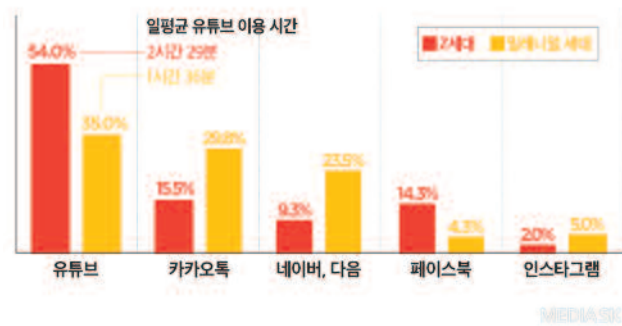
※ 출처 : 팔도 블로그



※ 출처 : CU

어떤 채널이 없으면 일상이 가장 지루할까?

(Base=전체, n=800, 상위 Top5 제시, 단위=%)



Z세대의 언어문화 활용

최근 Z세대 특유의 언어문화인 ‘야민정음’, ‘초성체’ 등을 제품 홍보에 활용하는 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야민정음은 한글 자모를 모양이 비슷한 것으로 바꾸는 표현방식으로 ‘멍멍이’를 ‘땡땡이’로, ‘귀여워’를 ‘커여워’로 쓰는 식이다.

지난 2월 한국야쿠르트가 팔도비빔면 35년 한정판에 야민정음을 활용하여 출시한 ‘팔도네넴면’은 SNS 등에서 화제가 되며 온라인 한정수량 500만 개가 한 달 만에 완판됐다.

편의점 CU에서 파는 초코 케이크 ‘ㅇㄱㅇㅇㅇㅇㅇㅇㅇ’는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는 뜻의 ‘이거레알 반박불가’의 초성을 따서 지었다. CU는 지난해에도 쿠키앤크림 케이크 ‘ㅇㅈ? ㅇㅇㅈ’을 선보였다. ‘인정? 어 인정’이라는 뜻으로 ‘맛있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두 제품의 인기에 힘입어 해당 업체 매출은 2017년 36억 원에서 2018년 114억 원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착한기업 활동에 Z세대 호응

화장품 브랜드 러쉬(LUSH)는 창립 때부터 환경, 동물,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윤리적 소비를 지향해 왔다. 러쉬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샴푸, 컨디셔너, 샤워젤 등 액체 세정제를 고체 형태로 만들고 포장을 없앤 네이키드(Naked) 제품을 판매한다.

실제로 2018년 네이키드 제품 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약 660만 개에 달하는 플라스틱병 쓰레기가 줄었다. 이러한 착한기업 활동은 Z세대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TV 광고나 유명인을 모델로 쓰지 않고서도 지난 4년간 연 매출이 전 세계 매장은 17%, 국내에서는 26% 이상 성장했다.

최근 Z세대가 직장에 입사하기 시작했다. Z세대와 함께 소통하고 일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네 가지 포인트를 제시한다.



Z세대와 함께 일하기

예의 없다고 오해하지 말라

Z세대는 회의 중에도 자주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이전 세대의 관리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예의 없는 친구들’, ‘산만한 세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큰 오해이다. 스마트폰을 보며 판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회의에서 논의되는 것 중 어렵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내용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유년시절부터 스마트폰을 만져온 그들은 멀티태스킹이 되기 때문에 IT기기를 활용해 ‘스마트’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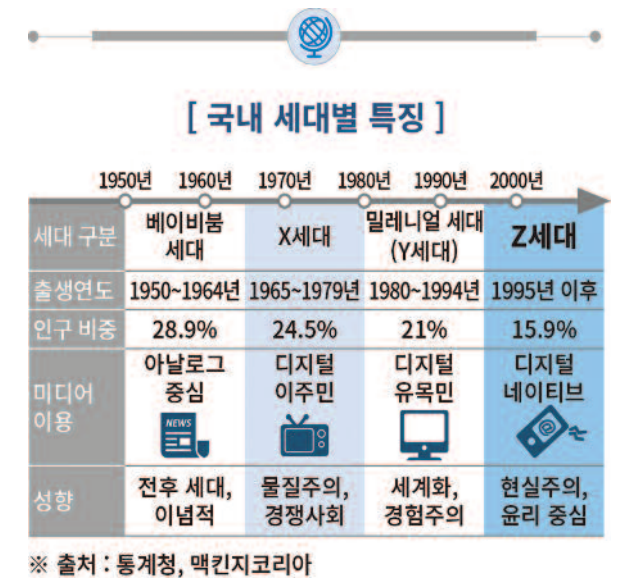
업무의 이유를 설명하라

Z세대는 하는 일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면 의욕을 잃기 쉽다.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회사가 월급을 주니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Z세대의 열정을 이끌어낼 수 없다. 또한 소모품으로 쓰이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가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의 목적과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수평적 리더십을 구축하라

Z세대 직원을 기존 조직문화에 억지로 적응시키려 하다가는 되레 역효과가 발생하기 쉽다. 과거 경험을 앞세워 선불리



조언했다가는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나이나 연차에 의한 권위보다는 수평적 리더십과 실력으로 모범을 보이고 Z세대와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Z세대의 '디스'를 경청하라

Z세대는 의문이 생기면 바로바로 질문하고 조직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눈치 보지 않고 얘기한다. 버릇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Z세대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자. 귀를 기울이면 업무와 조직의 문제가 보일 것이고 개선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의외로 오래된 조직문화의 문제를 해결할 힌트가 Z세대에게서 나올 수 있다.

● '북유럽 복지모델과 시사점' 보고서 ●

혁신성장으로 복지 몸집 키운 '북유럽 모델' 본받아야

우리경제의 성장과 분배 이슈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혁신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복지확대를 함께 달성한 북유럽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북유럽 복지모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북유럽은 OECD 국가중에서도 성장, 고용, 분배면에서 좋은성적을 거두고 있는 국가들”이라며 “북유럽의 성공배경에는 혁신성장을 통한 복지확대가 핵심이다”고 밝혔다.

유럽의 복지모델을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하면서 “북유럽 모델”이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북유럽 국가들(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을 보면 1인당 GDP가 5~8만불에 달하며 고용률도 7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GDP대비 25~29%로 OECD 평균(20%)을 상회하며,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도 OECD국가 중 최하위다.

‘선진 복지’ 북유럽 성공배경 :

①혁신의 지원 ②인적자본 확충 ③강한 사회적 자본 ④선제적 복지개혁

보고서는 북유럽이 선진 복지국가로 올라선 배경에 대해 “북유럽은 혁신, 성장, 복지의 선순환을 달성한 좋은 예”라며 “혁신으로 성장 동력과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일하는 복지를 기반으로 선제적인 복지 개혁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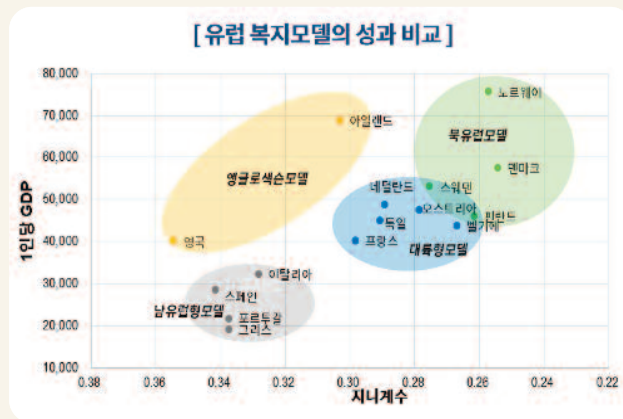
첫째가 ‘혁신의 지원’이다. 북유럽은 창업지원시스템, 인력 재배치 프로그램(핀란드, 노키아 브리지 인큐베이터), 혁신 클러스터(스웨덴, KISTA 사이언스시티) 등을 통해 양질의 창업생태계 만들었다. 특히 인구 1000만명인 스웨덴에는 한국(6개)보다 많은 11개의 유니콘기업이 존재할 정도로 스타트업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① 북유럽형 : 성장 중시, 보편적 복지

② 앵글로색슨형 : 성장 중심, 최저 생계 보호

③ 대륙형 : 성장 강조, 사회보험 중심 복지

④ 남유럽형 : 성장보다는 복지 중시



또한 “GDP 대비 R&D투자 비중은 스웨덴(3.3%), 핀란드(2.8%), 노르웨이(2.1%)는 한국(4.6%)보다 낮지만, 민간기업 중심으로 R&D투자의 질을 높였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등 제조업 강국이던 북유럽이 최근 지식집약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등 다양한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다음으로 ‘인적자본 확충’이다. 보고서는 “북유럽은 교육에 대한 적극적 공공투자를 바탕으로 인적자본을 확충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직업훈련, 재취업 프로그램 등 강한 고용안전망을 통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노르웨이 2위, 스웨덴 8위, 핀란드 13위 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한국 29위>

북유럽의 성인역량과 인적자원 수준은 OECD중 최상위다. 북유럽 국가들의 여성 고용률은 70% 이상이며, 청년 고용률도 한국(26.2%)의 2배 가까운 수준이다.

“한국은 직업훈련, 기술인력 양성 등 통해 노동수요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투자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며 “강한 사회·고용안전망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특히 혁신과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한 사회적 자본’도 강조됐다. 보고서는 임금인상 자제와 복지개혁 교환에 노사가 대타협을 이뤘던 스웨덴 살트세바덴협약(1938)을 예로 들며 “북유럽 국가들은 오랜 역사에 걸쳐 노사협의 및 합의문화, 위기갈등 해결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해왔다”고 말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핀란드”

핀란드 수출 20%를 차지하던 노키아의 몰락으로 핀란드는 2012년부터 4년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했다. 그러나 핀란드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응하며,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다. 노키아 출신 인력의 창업을 지원하는 ‘노키아 브리지 인큐베이터’는 핀란드의 창업확산과 수많은 중소기업 탄생에 도움이 됐다. 노키아 출신 인력의 활발한 창업으로 핀란드에서는 2017년 기준 2,370개 스타트업이 활동하고 있다.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의 미래투자”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1856년 창업)은 1917년 설립한 16개의 발렌베리 공익재단을 통해 매년 약 2,700억원을 연구개발 투자로 기부해왔다. 또한 인공지능, 자율시스템 등을 연구하는 스웨덴 최대 단일연구프로그램인 WASP(Wallenberg AI, Autonomous Systems and Software Program)에 약 4,300억원을 출자하여 참여 중이다.

또한 보고서는 “투명한 정부행정·법제도를 바탕으로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 고복지·고부담 체계의 유지가



가능했다”면서 “한국에서도 사회적 자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의와 합의, 신뢰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선제적 복지개혁’이다. 보고서는 북유럽 3국이 선제적 개혁을 통해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최근 사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은 고령화 등으로 복지지출 규모가 2030년대 후반 OECD 평균 수준(GDP 대비 21%)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며, 우리나라의여건에 맞게 합리적이고 유연한 복지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초 이후 금융·재정위기로 高복지 체계의 문제점이부각되자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복지지출 감축과 국민부담률 상승 억제를 통해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최근에는 고령화 진전, 성장세 둔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성장친화적 복지로 유연하게 변화해 가고 있다.

“핀란드, 대립에서 합의로 반전”

핀란드 노사정은 1년간 치열한 협상 끝에 공공부문 임금 삭감, 추가 보상 없이 연 24시간 노동시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경쟁력 협약(Competitiveness Pact)’을 2016년 체결하였다. 노조는 기업들의 이익 재투자 및 고용확대 약속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계획했던 정부지출 축소 계획을 철회하고 소득세 41.5만 유로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스웨덴, 현재도 복지개혁 진행중”

스웨덴은 1991년 조세개혁(소득세·법인세 대폭 인하, 과세기반 확대, 간접세 인상)과 복지지출 축소(연금 개혁, 사회보험 축소)를 단행하였다. 또한 공공사회서비스 개혁의 일환으로 2006-2014년까지 기초보건 및 의료기관의 20%를 민영화하였다. 이에 따라 스웨덴의 국민부담률과 국가채무 비율은 1996년 각각 47%, 70%에서 2017년 44%, 41%로 하락하였다.

유류분제도에 대하여

법무법인 동천 김정찬 대표 변호사



들어가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 중 일부에게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공동상속인이 되는 다른 자식들은 그만큼 상속을 덜 받게 되거나 심지어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법에서는 유류분제도를 규정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유류분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유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류분권

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 합니다. 유류분권자는 이러한 유류분권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유언으로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부족한 유류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나. 유류분권은 상속권과 마찬가지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 없는데, 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포기가 가능합니다.

2. 유류분의 범위

가. 유류분권자는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고, 상

속권자와 다른 점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유류분권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 유류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유류분권자 일 때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유류분권자일 때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다. 유류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상속개시시,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생전 또는 유언으로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재산입니다.

여기서 증여재산은 상속재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는 모두 산입되는데, 이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증여받은 재산에만 적용이 되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중에서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의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즉,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2년 전이던, 10년 전이던, 20년 전이던 모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받은 증여라도, 증여하는 피상속인과 증여를 받는 제3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는 유류분 산정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라. 이 중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는 증여재산은 증여받은 때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장남이 10년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더라도 그 가액은 10년 전의 부동산의 시가가 아닌 피상속인이 사망한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금전의 경우에도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환산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가장 잘 반영

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증여받은 금액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쉽게 말해 증여 당시의 화폐가치가 현재의 화폐가치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수준 변동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라. 이에 따른 상속인 각자의 유류분의 액은 이와 같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그 상속인의 유류분의 비율(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곱한 것이 됩니다.

3. 유류분의 침해액

가. 유류분침해액은 다음과 같이 유류분액에서 순상속액, 즉 실질취득액을 공제하여 산정되며, 유류분액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인 실질상속재산액에 당해 상속인의 유류분율을 곱한 것에서 다시 당해 상속인의 특별수익액을 공제하여 산정되고, 순상속액은 적극상속재산액에 당해 상속인인의 상속분율을 곱한 것에서 상속채무액에 당해 상속인의 상속분율을 곱한 것을 공제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유류분침해액=(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증여가액-채무액)×당해 상속인의 유류분율-당해 상속인의 특별수익액-(적극상속재산액×당해 상속인의 상속분율-상속채무액×당해 상속인의 상속분율)

나. 즉, 당해 상속인의 유류분액에서 당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을 공제하였는데도 유류분액이 남는 경우에만 유류분 침해가 있게 되고, 침해되

는 액수만큼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당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이 유류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유류분 침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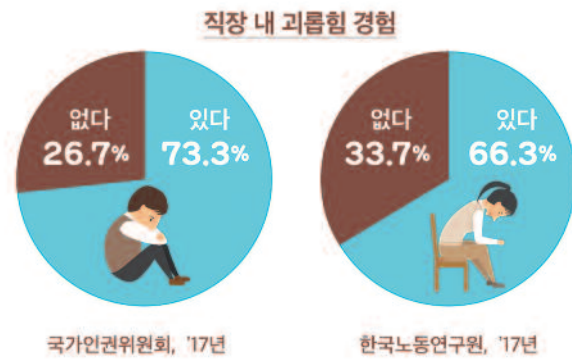
4.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행사기간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위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도달되면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소멸하게 되는데, 통상 상속이 개시되면 유류분 침해를 알았다고 보게 되고, 피상속인의 사망시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시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소송의 제기로 행사하여야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있게 됩니다.

맺으며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는 두가지 요구를 조정하기 위하여 유류분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장남 또는 아들을 우선하는 재산분배가 관행화되어 있는 듯합니다. 재산상속에 있어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상속인이란 유류분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법에서 인정되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이 금지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더 이상 방치 될 수 없습니다.

- 간혹계 '태움' 문화, IT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피 일가의 폭언 등이 이슈화 되면서 직장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 직장인의 70% 내외가 피해 경험을 밝혔을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법이 7월 16일 시행됩니다.

3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작성 • 변경한 취업규칙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호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 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

4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이직 및 업무능력 저하의 요인이 되어 기업의 생산성 하락

- ▶최근 1년 이내 이직 경험자의 48.1%가 이직사유를 괴롭힘으로 꼽음(국가인권위원회 조사' 17)
- ▶직장 내 괴롭힘 1건에 대한 비용을 1,550만원으로 추산한 연구결과가 있음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직장 내 괴롭힘 3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

-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사항에 관한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주장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의무 및 처벌

제109조(벌칙) ①(……)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포함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업무상 질병
- 가.나(생략)
- 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 1 - 2 (생략)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폭행 및 협박행위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에 폭력을 가하는 등 직·간접의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폭행이나 협박 행위는 사실 관계만 확인되면 인정가능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지시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폭언, 욕설, 헐뜯 등 언어적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반단될 경우 인정가능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고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인정가능



과도한 업무부여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행위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업무상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가능



사적용무 지시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임으로 인정 가능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 원할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 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가능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사회 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가능



<출처: 고용노동부>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다.

■ 지원대상

법정근로시간 단축기업 및 6개월 이상 조기단축 기업

■ 지원내용

[인건비]

- 300인 이상 기업 : 증가 **1인당** 월 최대 60~80만원, 1~2년간
- 300인 미만 조기단축 기업 :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최대 3년간

[임금감소액 보전]

- 500인 이하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 1인당 최대 40만원, 1~3년간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기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자 하여 근로자 증가가 예상된다.

■ 지원대상

교대제개편 · 실근로시간단축 · 일자리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

■ 지원내용

[인건비]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최대 40~80만원, 1~2년간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 **1인당** 최대 40만원, 1~2년간

[설비투자비 등] 최대 50억원(투자비 2/3범위 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했다.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의 대체 인력을 고용했다.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내용

[간접노무비]

지원유형	지원대상	회차별지원액 (1개월단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월 10만원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대체인력인건비]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최대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최대 30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사업주)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 만55세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 ·
청소원 · 사회적기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규모무관 지원

(근로자) 월 21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5인미만 15만원까지) 지원
단, 단시간 및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일수)에 비례하여 지원

*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에 장년을 고용하고자 한다.

■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
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내용

(지원수준)근로자수 **1인당** 월 40~80만원 지원

	3개월 지원액	연간 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240만원	960만원
중견기업	120만원	480만원

정규직 전환 지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

■ 지원대상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 · 중견 사업주

■ 지원내용

[임금증가보전금] 전환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 전환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 지원대상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 · 중견기업
[근로자] 만 15세~34세 청년(생애최초 취업 및 고용보험 12개월
이하 자)

* 단, 고용보험 12개월 초과자 중 실직기간 6개월 이상 자 가입 허용

■ 지원내용 : 2년 근속시, 1,600만원 + 이자 자산 형성

(단위:만원)

	소계	1월	6월	12월	18월	24월
청년	300		매월 12.5 × 24개월			
기업	400	45	70	95	95	95
정부	900	75	150	225	225	225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 지원대상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 · 중견기업
[근로자] 만 15세~34세 청년(생애최초 취업 및
고용보험 12개월 이하 자)

■ 지원내용 : 3년 근속시, 3,000만원 + 이자 자산 형성

(단위:만원)

	소계	1월	6월	12월	18월	24월	30월	36월
청년	600		매월 16.5 × 36개월 = 594					
기업	600	50	50	75	100	100	100	125
정부	1,800	150	175	225	250	325	325	350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주 15~30시간 시간선택제 근로를 도입할
여건이 된다.

■ 지원대상

실업자를 시간선택제(주소정근로시간 15~30시간 이내)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3개월간 고용 유지한 사업주
(전자 ·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지원내용

[인건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 **1인당** 월 10만원

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직원들의 근무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

■ 지원대상

시차출퇴근제 · 탄력 · 재택 · 원격 근무제를 도입하여 일 · 가정양립 환경 개선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내용

[간접노무비] 활용근로자 **1인당** 연 520만원 한도(단, 주1~2회 활용시
연 260만원 한도)

[인프라구축비]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구축비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2,000만원 한도 지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

■ 지원대상

[훈련 실시 주체] 고용보험법 상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적
용을 받는 사업주

[훈련 실시 대상] 15세 이상의 근로자(재직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 지원내용

[훈련비] 직종별 기준단계에 따른 훈련비 지원(해당연도 고용
보험료 중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 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 한도)

[무대비용] 훈련수당(구직자 · 채용예정자 대상, 월 20만원
한도) 및 숙식비(1개월 33만원 한도) 등 지원

일학습병행제

현장훈련과 실무경험으로 기업에 필요한 숙련인재를 양성할 계획이 있다.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기업)이며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기업

* 우수기술기업, 관계부처 전담기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기업군(일학습병행제 특화업종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예외
적용 가능

■ 지원내용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비와 훈련비 지원
-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지원
-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육성 지원



“사람과 함께 일 합니다.”

“협업 로봇은 신기술이었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로봇 덕분에 사람과 로봇이 동일한 작업 공간에서 일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전하게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진자형 공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광택 결과물을 사람에게 넘기기 전에 로봇이 충분한 작업을 했는지 사람이 확인합니다. 이것은 매우 밀접하게 협력하는 형태의 공정입니다.” Paradigm, 캐나다 / 인터뷰 중



적용분야 : 포장 및 적재 / 사출 성형 / 연구소 분석 / 나사 돌리기 / 광택내기 / 접합, 디스펜싱 및 용접 / 기계 관리 / 조립 / 픽애플레이스 / 품질검사